

2 뉴스

서울총학 GPA환산식 관련 TF팀 구성 합의

이동건 기자 ehdrijs3589@khu.ac.kr

우리학교 GPA (Grade Point Average, 평균평점) 백분위 환산식 개정을 위한 TF팀이 3월 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GPA 백분위 환산식을 상향 조정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GPA 백분위 환산식 개정과 관련한 진전은 작년 9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GPA 백분위는 학부 성적을 백분위로 변환한 점수이다. 학부성적 만점 기준이 대학별로 평점 4.3, 4.5 등으로 달라도 학교 간 직접적인 비

교가 가능해 중요하게 사용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전문 대학원, 약학대학 입시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학교 GPA 백분위 환산식에 의하면 학점 2점대 이상부터 서울권 주요 대학보다 낮은 GPA 백분위 점수가 도출되는 상황이다.

작년 9월 우리신문은 이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우리학교 GPA 백분위 환산법 타교에 비해 불리/대학주보 온라인 (2021.09.12.)) 당시 우리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동일학점을 GPA 백분위 점수로 환산했을 때 서울권 상위 10개 대학(서

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특정 평점 구간에서는 타교와 GPA 백분위 환산점수가 2점가량 차이 나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대학 자체 환산표를 기준으로 GPA 백분위를 산정하는데, 우리학교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학교 학생들은 경희음부즈와 양 캠퍼스 총학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당시 양 캠퍼스 총학은 해당 민원을 교무처장이 참석하는 학사운영 TF의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양 캠퍼스 총학은 SNS와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 교무처와 총학생회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시급히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하여 안내하겠다”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GPA 백분위 환산식과 관련한 진전은 약 6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서울캠 총학 KHU Play는 ‘GPA 백분위 환산식 개정’을 학사 관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했고, ‘GPA 백분위 환산식 개정’을 안건으로 교무처장을 비롯한 학사유관 부서와 두 차례 미팅을 진행했다. 서울캠 총학은 해당 미팅에서 ▲GPA 백분위 환산식 관련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제시 ▲관련 민원 공론화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서울캠 총학은 ▲현재 GPA 백분위 환산식을 만든 근거 ▲GPA 백분위 환산식 개정에 따른 학우들의 피해 ▲상향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학사지원팀에 요청했다. 이에 지

난 1월, 서울캠 총학과 학사지원팀은 해당 안건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GPA 백분위 환산식을 상향 조정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올해 말 입시를 치르게 될 학생들(법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이 상향조정된 환산식의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와 관련한 TF팀은 3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회장은 “올해 3월 말 중으로 TF팀 구성을하기로 합의했고, 변경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며 “일정에 맞춰 최대한 학우 여러분들이 빠르게 답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 회장은 이어 졸업생의 개선된 환산식 적용 여부에 대해서 “TF팀에서 논의할 사안일 수도 있으나,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교직이수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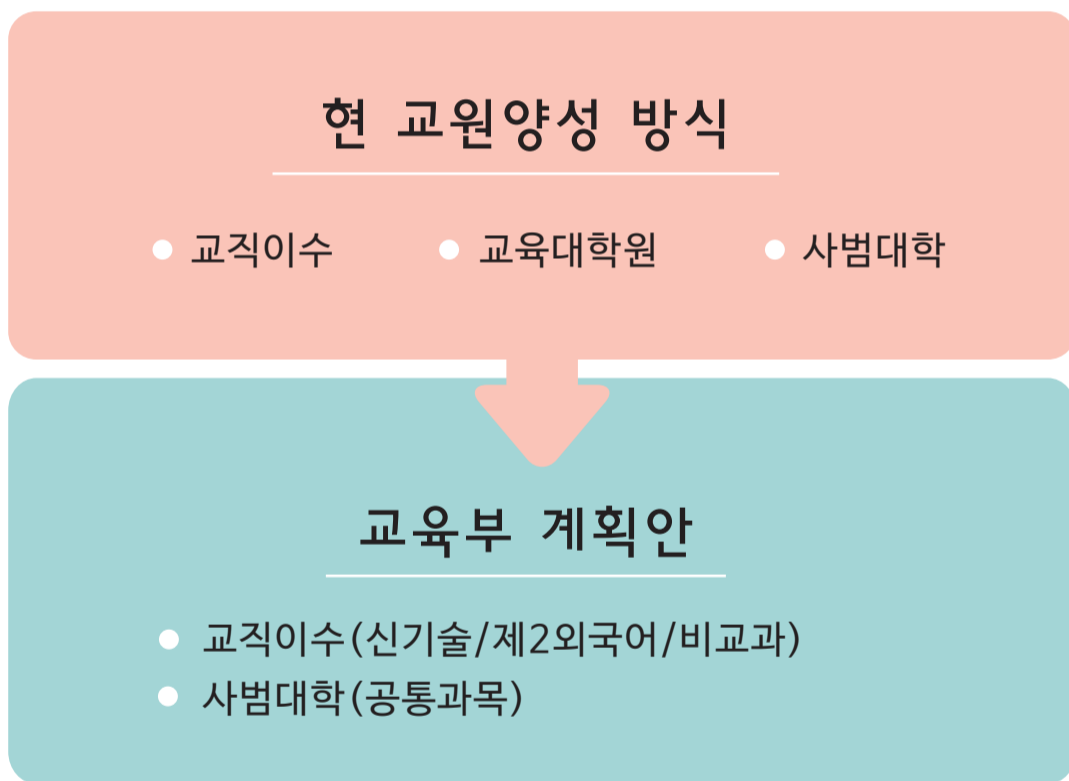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교육부가 지난 12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교직 이수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교사가 되는 길도 점차 좁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교직 양성 정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행되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맞춰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반대학에서 교직 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원 임용 적체가 심해지자, 교육부는 사범대학과 중복으로 양성되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공통과목 교원양성 인원을 점차 줄이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양성 정원의 감축 배경에 대해 “중등 같은 경우 임용되는 규모에 비해 양성되는 규모가 너무 커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현재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 끝나는 2026년부터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



*공통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사범대학과 중복으로 양성되는 교과목

라고 전했다. 다만 “교직 이수 중인 학생은 당연히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며 현재 교직 이수 과정에 있는 학생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현장의 혼란을 예상해 급진적으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범대학과 중복으로 양성되는 과목에 대한 교원양성 인원은 축소해 나갈 방향이라는 것이다.

한편 비교과 분야와 정규 교과목에 반영되지 않은 분야, 교원 자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직 이수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이 유지된다. 또한, 기존 교직 이수 가능 학과의 정원 10% 이내에서 선발하던 교직과정을 신규

분야 등으로 전환 시 해당 분야 학과의 정원 30% 내 교직과정 운영이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라며 “공통과목에 대한 정원은 줄이고, 다른 신규 분야 학과를 개설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장 교직 이수 인원 감축은 없지만, 교육부의 발전방안에 따라 공통과목 교직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범대를 제외하면 교직에 입문할 길이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학교 교직 이수 과정은 총 37개의 학과에 설치돼 있다. 학과에는 국어, 수

학, 영어, 사회, 과학, 미술, 음악 등의 공통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교직 이수를 희망하는 양경은(국어국문학 2021) 씨는 일반대학 교직 이수 인원 축소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요소라 생각해 이해한다”면서도 “교원 감축 시행으로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지 못한다면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직 이수 체제는 추후 교육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교직팀과 교육대학원은 교직 이수 체제에 대해 “아직 후속 조치나 구체적인 변화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1면 '개정된 재수강제도 적용된다'에서 이어짐

학기당 허용 과목 수와 재수강이 가능한 정규학기 역시 기존 재수강제도와 동일하다.

재수강 방법은 최초 성적취득 후 4개 학기 및 계절학기 기간에 해당될 경우 직접 수강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재수강 신청 시기가 지나고, 수료 및 졸업요건 충족에 필요한 과목이라면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학사지원팀으로 재수강을 의뢰할 수 있다. 수료 및 졸업요건 충족에 필요한 교과목은 전공필수/전공선택/필수교양/배분이수/SW과목/영어과목을 모두 포함한다.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은 단과대별로 상이하므로 단과대별 졸업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재수강 가능 시기를 최초 학점 취득 후 4개 학기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과대학 소속 A씨는 “전공 수업 특성상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만 개설되는 과목이 대다수”라며 “4개 학기가 시간상으로 여유롭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재수강 가능 정규학기를 연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학년이 재수강을 통해 높은 성적을 취득하면, 저학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취득하게 된다”며 “고학년이 계속해서 재수강을 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수강으로 인한 수강신청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재수강 가능 학기를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